

“전북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전주대-전북연구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14일 전북연구원과 ‘지역개발정책 공동연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 부동산학과장 엄수원 교수, 부동산학과 정철모 교수,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 김진석 연구본부장, 나정호 연구기획팀장, 지역개발연구부 오병록 연구원 등 양 기관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의 양해각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산학연구협력사업 수행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청년취업을 위한 사회적경제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북 지역 구도심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공동 연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전주대와 이렇게 양해각서로 협력을 재확인한 것은 그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구체화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각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기관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북연구원과 협



전주대가 지난 14일 전북연구원과 ‘지역개발정책 공동연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협약을 통해서 더욱 청년취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 기관은 학술·연구시설 및 전문서적 공유, 친선활동 등 실제적인 협력도 합의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년 연속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종교문제연구소가 발행중인 학술지 ‘한국종교(韓國宗敎)’가 2년 연속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술단체의 학술 활동 활성화를 비롯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신생·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학문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학술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학술지 ‘한국종교’는 신생·소외분야에서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학술지 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술지 지원 규모 확대 대신 선정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가운데 2년 연속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1971년에 창간돼 47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종교’는 한국의 신종교와 민족종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사업 선정으로 2019년에 발행하는 학술지 발간경비를 지원받게 됐다.

박광수 연구소장은 “원광대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연구소 중 하나인 종교문제연구소는 앞으로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그 평화적 역할을 모색하는 중심 센터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는 1967년 3월 초대 소장 류병덕 박사의 주도로 개설돼 2대 김홍철, 3대 양은용 소장을 거쳐 현재 박광수 소장에 이르고 있으며, 학술지 정보는 종교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krel.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대 물류학과 ESC팀, 전국 대학생 물류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ESC팀(박관석·김도연·진기종: 3학년)이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물류혁신·창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비즈니스포럼에서 개최되었다.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물류

혁신·창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물류 산업에 대한 혁신 방안과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및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해운수산부가 지원하고 부산대학교 해운항만국제물류 융합인력양성사업단이 주최해 열렸다.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 끝에 ESC팀의 논문이 최

우수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ESC팀은 일상생활을 접목하여 새로운 물류 SCM(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과 세타기의 완전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대 물류학과는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지식 및 스마트물류 응용능력, 우수한 인성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인프라의 성과로 학생들이 매년 각종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김승환 교육감, 수능시험장서 수험생 응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했다. 오전 7시 30분께 전북대 사대부교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교시장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환한 응원과 환성 속에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도착했고 김교육감은 수험생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아는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 얼굴보다 자신감이 넘친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수험생들의 입실이 거의 완료된 8시께 감독관실로 이동해 감독관들을 격려한 뒤,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15일 오전 전북대 사대부교를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관리위원 워크숍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2단계 면접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면접 관리위원 및 진행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북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효율적인 2단계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방법 및 면접 평가 시 진행 방법, 면접평가 기법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

하고, 면접 관리위원들에게는 면접진행 절차와 준비사항, 보안 관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 2단계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방법을 시행하고, 면접위원들이 피면접인들의 출신학교나 출생지, 가정환경 등에 대한 기초자료 없이 면접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진행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이번 워크숍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봉사단 FAN’이 단체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가족처럼 소중히’ 전주대 학생봉사단 ‘FAN’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5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최한 2018 전라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봉사단 FAN’이 단체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학생봉사단 ‘FAN’은 Family And Neighbor의 약자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족처럼 소중히 섬긴다는 봉사의 정신’을 담고 있다.

학생봉사단이지만 전주대 사회봉사센터와 e-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봉사를 진행한다.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25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 자원봉사자로 길러낸다. 이들은 지역사회 및 기관 등 각처와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진행된다.

한 해에만 50여 회의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자원봉사자 인

식개선, 데이트 폭력, 다문화 차별 등 이슈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계 및 동계 농어촌 봉사, 청주시 수해 피해 복구, 독거노인 말벗 봉사, 연탄봉사 등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대 FAN 김세환 학생은 “앞으로도 장애인, 독거노인,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긴급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봉사시스템을 갖추어 상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N 지도교수 김광혁 사회봉사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봉사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단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